

다산포럼



김강
미황사 주지스님

지난해 태풍 불라벤의 비바람이 불던 날 밤에는 온 산이 울었다. 어찌나 바람이 세게 불던지 숲의 생생한 나무 이파리들이 찢기고 떨어져 밤하늘을 빙빙 돌다 흩날려 떨어지고는 했다.

삼년 째 남도 땅의 겨울도 지독하게 추웠다. 지난 2월 어느 날 동백의 숲을 거닐다가 그 두텁고 푸르던 이파리들이 추위에 동그랗게 오므라드는 모습을 보았다.

나무들은 한여름의 땀벌에도, 무서운 비바람의 태풍에도, 뼈를 깎는 추위에도 꺾이지 않고 한자리를 지키다 새봄이 돌아오면 어

봄꽃이 피면 한번 모인다

깊없이 작고 아름다운 꽃들을 내밀며, 싱그러운 새색을 돌아낸다. 이번 봄은 유달리 꽃이 많이 피었다. 온 산에 붉은 동백꽃이 가득하고, 매화향기가 도랑에 진동한다. 달마산 바위 틈새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피어난다.

지난 겨울 낙엽 떨어지고 움츠러 들었던 것들이 꽃과 향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나 보다. 꽃들이 마치 누구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다. 사람을 부르는 듯 마력이 있다. 이 화사한 봄을 혼자 보기만 아깝다. 봄꽃은 누군가와 함께 보아야 한다. 꽃구경 하고, 차 한잔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차 한잔 -금당다회(박남준)
매화가 핀다고/ 연꽃이 굵다고/ 산국처럼 물들고 싶다고/ 눈꽃이 못내 그리움다고/ 솔솔 맑은 바람 다관에 우러내면/ 찻잔에 어느새/ 푸른 하늘 담기네.

오래 전부터 함께 꽃 계절마다 만나는 차모임이 하나 있다. 각자가 차와 다과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서 만나는 모임이다. 매화가 필 무렵이 되면 약약 동매골에 매화화

회를 하기 위해 벗들이 모여든다. 퇴계의 매화시집을 읊조리고 매화 띄운 차 한잔을 마신다.

연꽃이 피면 무안 회산방죽이나 강진 금당연못의 연꽃과 함께 연꽃을 노래하고 차를 마신다. 산국이 피면 팥갈마음로, 눈꽃이 피면 봉화 청량사로 모여 맑은 차 한잔과 귀담아 들을 지혜의 이야기와 속사정을 살피는 만남은 반갑고 기쁘다.

다산선생도 시 짓는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죽간시사첩(竹間詩帖)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삼구꽃이 처음 피면 한 번 모이고, 복숭아꽃이 처음 피면 한 번 모이고, 한여름에 완화가 익으면 한 번 모이고, 초가을 서늘할 때 서지(西池)에서 연꽃 구경을 위해 한 번 모이고, 국화가 피면 한 번 모이고, 겨울철 큰 눈이 내리면 한 번 모이고, 세모(歲暮)에 화분에 심은 매화가가 피면 한 번 모인다.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으면 모임을 마련하고,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마련하고, 품계가 승진된 사람이 있으면 마련하고,

자제 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으면 마련한다.’

5000년 가운데서 더불어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 같은 나라에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그 중에서 귀하게 만나는 만남이야말로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고 까지 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IMF이후 급격하게 개인화되고, 경쟁화 되었다. 가까운 친구들이나 직장인 동료들에게서 오히려 긴장하고 갈등이 생겨 병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긴장을 풀고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임이 있다면 든든하지 않겠는가! 먼 곳에서 자신의 멘토를 찾기보다는 주변에서 찾고 만남을 만들어 보자.

나를 지혜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문수요, 좋은 행동으로 늘 돕는 이는 보현이다. 한 시대를 살면서 함께할 도반과 만남을 지속하게 하는 차 모임을 만들어 보자.

社說

광주 내년 고교배정방식 또 ‘꼼수’ 부리다니

무더기 강제배정으로 반발을 샀던 광주 고교배정방식이 학생 선택권을 일부 늘렸을 뿐 내년에도 거의 그대로 시행돼 또다시 후유증이 우려된다. 전면 제도가 개선 요구에 현재 7개 학교였던 선택곡을 내년에는 최대 11개교로 늘리기로 했지만 강제배정 책임을 학생·학부모에 떠넘기는 ‘꼼수’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고교배정방식에 대해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강제배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지원 학교 수를 늘리는 등 일부 방식을 보완했다. 하지만 선지원에서 정원의 40%를, 후지원에서 60%를 추천·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다.

선지원에서 2개교를, 후지원에서 5개교를 선택하는 것도 종전과 같다. 다만 후지원에서 우선순위를 없앴고, 중학교별 배정 가능 교고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1~4개교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고교가 밀집된

남구의 경우 현재 7개교에서 최대 11개교까지 선택폭이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후지원에서 선택 학교를 넘겨준 것 외에 율해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후지원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내년에는 최대 11개교로 늘리기로 했지만 강제배정 책임을 학생·학부모에 떠넘기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에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배정 가능 고교 수가 적은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 강제배정 후유증의 원인으로 꼽혔던 성적등급에 의한 일괄배정은 율해도 반영 비율만 약간 낮춘 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

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고교 신입생 배정의 가장 큰 기준은 통학 편의와 학생 중심의 선택권이 우선이다. 평준화 명분으로 이미 부작용이 드러난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일 뿐이다.

잇따른 어등산 불발탄, 제거작업 다시 하라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광주 어등산 일대에서 최근 잇따라 불발탄이 발견되고 있다. 어등산을 찾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불발탄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39분께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자락 남쪽의 한 공사현장 인근에서 나뭇을 깨던 주민이 71mm 포탄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앞서, 같은 달 14일 오전 11시께에도 광산구 운수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81mm 조명탄이 발견됐다. 불발탄은 1951년부터 1994년까지 육군의 포 사격장 시절 사용된 포탄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4년6개월간 어등산관광단지가 들어설 광산구 운수동 일대 273만 2천㎡에서 불발탄 1365발을 제거했지만 작업 완료 후인 지난해와 올 들어 10여 차례나 불발탄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는 군 당국의 불발탄 제거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불발탄 안에 화학 성분이 있을 경우 중독 정도에 따라 폭발할 위험성이 높다.

어등산은 관광단지 개발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어등산에서 하남·진곡산업단지 방면으로 향하는 공사현장 인근에서 포탄 발견 빈도가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 만일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인재(人災)이자, 어등산 개발 자체가 물거품 될 수도 있다.

이 일대에서 불발탄 제거가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테마파크·호텔 등 관광단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향후 관광단지 공사 차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육군으로 하여금 불발탄 추가 조사 및 제거작업을 반드시 실시토록 해야 한다. 관광단지로 개발해도 불발탄이 남아있다면 어등산을 누가 찾겠는가.

교통칼럼



고재엽
전남운전면허시험장장

2010년 69세의 늦깎이 나이로 959전 960기 끝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연분을 떠들썩하게 했던 차사순(여·72세) 여사를 아십니까? 이 같이 현재도 이주민·청각장애인·문맹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의 면허취득을 위한 도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우미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들이 한걸음 더 면허취득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2011년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시행됐다.

즉, 복잡한 절차에 따른 불편 해소로 자신의 운전능력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응시생은 운전

에 필요불가결한 모든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서도 전보다는 더욱 쉽게 취득이 가능해져 운전면허의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이로써, 간소화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시간적, 금전적 혜택을 보장하면서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해야하는 상반된 명제로서의 과제가 주어졌다. 운전면허 취득의 첫 관문인 PC학과시험(필기시험)의 어려움에 대해 논하는 이들은 자주 본적이 없을 것이다.

전남시험장 지난 2월 말 기준 PC학과시험의 합격률 91%가 증명하듯 합격의 장벽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면허취득의 첫 관문인 PC학과시험은 결코 쉬운 일 만은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평균 5~6회 응시, 1~2회 응시한 일반인보다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모돼 이들에 대한 면허취득 지원이 절실했다.

전남시험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고충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진 면허행정·섬김 경영을 구현하고자 읽어주는 학과시험 프로그램 방안을 마련, 자체 개발하게 됐다. 현재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읽어

주는 학과시험 체험방’을 개설해 이들의 면허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간소화를 통해, 장애인 시험은 정지상태의 운전장치조작과 50m직진주행만으로 가능해졌다. PC학과시험과 비등하게 기능시험의 합격률 또한 91%다. 그러나 사전연습을 거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것이다. 전남시험장은 운전면허 취득조력 서비스의 일환으로 장애인 기능시험 모의 체험장을 운영 중이다.

실제 시험용 차량을 개조하여 정지상태의 운전장치조작과 기어변속을 연습할 수 있어 응시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응시생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도로주행 시험이다. 운전면허시험장의 특성상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은 시험 전 교육이 불가하다.

전남시험장 포항 전국 8개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뮬레이터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전남시험장은 광주·전남지역 유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점진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PC학과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도서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 조력으로 공익성 증진에 일조하고, 수혜지역의 지속적인 확대로 면허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통해 운전면허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영속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께부터 광주에서도 PC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광주권 및 동부권 인구는 총 180만명으로 전남시험장 관할 81%를 차지한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원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도로교통공단 광주지부에 학과장 신설이 진행 중이다.

전남시험장은 선진면허행정서비스를 통한 조력을 지속하며 선진면허행정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쉽고, 빠르고, 저렴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공정한 면허지원서비스를 제공에 힘쓰고자 한다.

※ ‘교통칼럼’은 광주일보와 광주교통방송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실리는 칼럼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2주마다 화요일자 오피니언 판에서 교통 전문가들의 격조 높은 칼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고



오주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장

순환도로는 도시내 교통중 원거리 지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교통을 도시외곽으로 우회시켜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도로다. 도시를 에워싸는 형태로 설치되어 영어로는 ‘벨트웨이(belt-way)’ 일본어로는 ‘환상도(環狀道)’로 불리고 있고,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도시에 순환도로를 건설하여 효율적인 도심부 교통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순환도로는 바로 제2순환도로이다. 지난 2000년 개통 당시 지역의 교통집중화를 분산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건설됐다. 하지만, 우리 광주

제2순환도로 승소, 시민의 혈세 절약하는 전환점으로

의 교통흐름이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소통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고, 곳곳에 설치된 통행료에 대한 부담감, 매년 민자사업자에 대한 광주시의 막대한 지원금 납부 등으로 시민과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순환도로가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쾌한 심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SOC민간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명령 취소소송에서 광주시가 최근 승소를 했다. 법원은 사업자인 맥쿼리가 광주시 동의 없이 자본구조를 임의변경한 것은 실시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시의 원상회복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처원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실 이번 승소까지 강운태시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한다. 민선5기 강운태시장 취임하면서 매년 재정보전금이 200억원이 상 소요되는 제2순환도로의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해 매입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민간투자자의 귀책사유가 규명되면 감독명령을

내라는 강시장의 아이디어가 시초가 되어 실무 공무원들과 함께 치밀하게 그동안 법적 소송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제2순환도로 제1구간은 맥쿼리와 실시협약 체결시 202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MRG) 85% 보장을 명문화하였으나 맥쿼리가 두차례 자본구조를 임의 변경하여 자기자본비율이 29.91%에서 6.93%로 축소되었고,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은 7.25%에서 10.0%로 변경하여 8년간 이자료만 1947억5000만원을 대주주에게 지급하였고, 결국 2011년까지 1190억원의 광주시 재정보전금을 투입함으로써 혈세 먹는 하마로 지적되어 왔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승소의미와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첫째, SOC민간사업자(맥쿼리)가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법인 자신의 출자자 이익만을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고, 둘째, 민선5기 공약사항인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 대책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다. 광주시 자료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맥쿼리)와 실시협약 중도해지시 지급금액의

80%로 매입할 경우 551억원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매입 후에도 시에서 관리운영할 경우 무상사용기간인 28년까지 약 5000억원의 재정경감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전국 민자사업의 최초사례로서 전국의 13개 맥쿼리투융자가 운영하는 민자 SOC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오로지 수익성만 강조하는 투기행위를 사회에 고발함으로써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민자사업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 사태를 비롯 부산수정터널, 백양터널 민자사업 등 투기성 민자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우리시 사례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타 민간투자사업의 모범사례로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2순환도로가 민선5기 강운태시장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무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수익성만 강조하는 투기성 자본형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민간투자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된 것 같아 안도감이 든다. 앞으로도 제2순환도로를 교훈 삼아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고 감동의 행정을 펼쳐 그야말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후에 일반전화로 국민 없이 1399번으로 신고 시 해당 시·군·구로 바로 연결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꼭 신고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나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필요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불량식품 척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명재·광주시 동구 학동

우리 아이들 위해 불량식품 신고는 꼭 필요한 일

초등학생들이 국적 불명의 값싼 불량식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하여 안심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출범과 더불어 4대악 척결에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이 있다.

그 중 학교 앞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중금속과 유해 색소가 포함된 식품을 오랫동안 먹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장애 염증이 생기고, 시력 저하가 일어난다고 한다. 또한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성장판에 영향을 끼쳐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불량식품을 사먹은 어린이

無 等 鼓

산골짜기에 살던 유년시절 마을 개울이 흘러 어떻게 섬진강과 바다로 연결되는지, 굽이굽이 산줄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미지(未知)의 세계는 끝없는 동경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자라는 평평하고, 예개해와 지중해가 세계의 전부이던 고대인들에게 지브롤터 해협입구에 우뚝 선 ‘헤라클레스 바위’가 ‘세상의 끝’이었다. ‘NE(non) PLUS ULTRA’(더 이상은 없다, 여기서 ‘세계의 끝’이라는 의미)라고 쓰인 이곳을 지나 미지의 세계인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간 때는 15세기 ‘대항해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1497년 포르투갈 항해가 바스쿠 다 가마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항로를 개척했다. 이어 마젤란 선단은 1519~1522년 세계 최초로 지구를 한바퀴 도는 항해에 성공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동글다’는 지리적 상식은 이러한 모험가들의 ‘세상의 끝’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물인 것이다.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발사 35년 만에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소식이다. 지난 1977년 9월 미국 NASA(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한 탐사선은 현재 태양으로부터 180억km 떨어진 태양권(태양풍의 영향이 미치는 한계)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보이저 프로젝트를 주도한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에서 탐사선에 대해 ‘탐험 항해에 나간 법선의 직계 자손’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우주공간의 끝까지 직접 탐사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누군가는 비싼 비용을 들여 우리 생활과 무관한 듯한 우주 공간에 탐사선을 보내 쿠다 가마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항로를 개척했다. 이어 마젤란 선단은 1519~1522년 세계 최초로 지구를 한바퀴 도는 항해에 성공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동글다’는 지리적 상식은 이러한 모험가들의 ‘세상의 끝’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물인 것이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세상의 끝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국인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 론 제 부 2200-621 제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 227-96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프 로 젝 트 팀 2200-55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